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사는 사람들

2020.12. 제4호

특집/ 코로나19發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그것이 알고 싶다!

특별 기고/ 코로나 시대, 아이들과 잘 놀려면
대학서열해소, 214명의 시민들과 함께
길 찾기에 나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년에도 오픈아이즈 워크숍은 계속됩니다!

WWW.OPENEYES.OR.KR

어둠속의대화 워크숍

<어둠속의대화> 전시 체험을 통해 100분간의 어둠 속 여행 후, 느낀 감정과 생각을 다양한 놀이 활동으로 표현합니다.



뮤지컬 워크숍

“내 인생에도 빛이 있을까요?” 17살 로운이의 이야기를 담고있는 참여형 뮤지컬 <오픈아이즈>를 관람하고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뜹니다.



무빙 워크숍

뮤지컬 <오픈아이즈> 관람과 오픈아이즈 워크숍으로 진행되며,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워크숍입니다.



대상
참가비
문의
참고

중, 고등학생 (14~19세)
무료 (기념품, 간식 등 지원)
☎ 02-743-1801
facebook.com/tsf.openeyes

더작은재단

The Small
Foundation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사는 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1년에 2번씩 활동 소식을 발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앞당기는 정책 운동과 시민 캠페인, 그리고 내 일처럼 앞장서는 좋은 이웃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 발행인 정지현 홍민정
- 편집 나성훈, 박윤혜, 채송아
- 디자인 김선미, 이재현
- 발행처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Tel.02)797-4044 Fax.02)797-4484
noworry@noworry.kr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대중 운동입니다.

- 이사장 송인수
-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정책국 구본창 김은중 김태훈 신소영
- 양신영 김초아 김자은
- 사업국 최승연 구은정 기숙영 이상원
- 미디어 박윤규 김선미 이서희 이재현
- 홍보국 나성훈 박윤혜 채송아
- 나눔+ 백성주 김슬지
- 기획지원실 김용명 최현주
- 영어사교육포럼 이병민 김승현
- 수학교육혁신센터 최수일 이경은 김상우
- 영유아사교육포럼 임미령 최현주
- 노워리 상담넷 윤다옥

Contents 2020.12

특집 코로나 시대의 교육

사진 스케치 마스크를 쓰고도 해야만 하는 일 / 나성훈	6
20대 과제 코로나19發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그것이 알고 싶다! / 홍민정	12
특별 기고 코로나 시대, 아이들과 잘 놀려면 / 정문기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사는 사람들

지역 모임 '교육 걱정' 자체가 사라진 세상을 살려면 / 무이스님	18
회원 이야기 나의 용기 뒤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있다 / 고나영	20
회원 이야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실천적 지혜 / 이화영	22
청년 모임 빛나는 스무 살, '생각우체부'가 되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 정지현	24
인터뷰 내 꿈을 살아내는 사람들 / 한태림	26

달려라, 노워리!

언니네 정책방 2020년 교육불평등을 파헤치다 / 채송아	30
대학서열해소 대학서열해소, 214명의 시민들과 함께 길 찾기에 나서다 / 김태훈	32
대한민국 교육에 68혁명을 / 서원빈	36
수학교육혁신센터 <수학의 발견> 활용 수업 컨퍼런스에 가 보았다 / 박윤혜	38
등대지기학교 얽히다 만난 인연 / 이상원	40
노워리상담넷 건강하게 교육시키려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42
인터뷰 송인수 · 윤지희 -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은퇴는 없다 / 채송아	44



후원보고	46
재정보고	48
에필로그 작은 온기를 전하며 / 나성훈	50

노워리 생활 광고

시민이 참여하는 광고판, '노워리 생활 광고'
삶에서 생긴 소소한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식지에 실어 드립니다.

큰 박스 광고 80x70mm, 작은 박스 광고 80x35mm
문의 02-797-4044 on@noworry.kr

김상우, 김슬지, 김자은, 김초아, 이상원 선생님,
입사를 축하합니다. ^^

나성훈

슬프고 싶을 때 읽으면 더 슬퍼지는
글을 드립니다.

글 읽으면서 평평 울고 난 후
뜨끈한 오뎅국 한 사발 들이켜시고 숙면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사니까.

- 35세에 사별한 아줌마 이야기

* 다음 브런치에서

'Cherry' 작가를 찾으세요.

백승미



드디어 내년 2월이면
저도 부모가 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만났던
인생 선배님들의
걸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정지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책을 만들었어요!
축하해주세요. ^^
세종시라는 낯선 곳에
와서 적응하기까지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한
인터뷰집입니다.

노유진



2021학년도

산티학교
신입생
모집

여행을 통해
자립과 상생을
배우는 성장학교

산티학교는 중고등 통합형
기숙학교입니다!

입학문의

대표교사 서수미 010 8638 4689

교무실 041 665 0213

<http://cafe.daum.net/shanths>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문현로 703

모집기간

2020년 9월 19일(토)~12월 26일(토)

모집대상

중2 · 3, 고1(15세~18세)

모집인원

00명

주요교과활동

▶ 직업장 수업 ▶ 책 쓰기 수업 ▶ 농사 수업
▶ 여행 ▶ 인문학 ▶ 인턴십

입학설명회

9월19일(토) 15시 산티학교 도서관

10월17일(토) 15시 봉담 H&S실용음악학원

10월31일(토) 15시 산티학교 도서관

11월28일(토) 15시 산티학교 도서관



지금까지 이런 모임은 없었다!
수포자를 위한, 수포자에 의한, 수포자
(엄마)들만의 동아리 '수 푸 리'

중랑등대 대외 홍보국

하나마을학교 신입생 모집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하나마을 학교
(초등 대안과정)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7-8세 통합반(2021년도 기준)

hanamaeulschool.modoo.at
02-6053-2019



유학가 널 응원해

“초록창에서 ‘찬동캘리’를 찾아보세요.”

김재민

3세 이전에 뇌가 완성된다고요?

지금 한글 떼지 않으면 나중에 힘든가요?

영어는 최대한 일찍 접해야 한다고요?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11가지 오해와 진실

0~7세 공부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부모 안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베이비뉴스 취재팀 외 13인
308쪽 | 14,800원

뇌과학자, 심리학자, 소아신경 전문의,
육아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0~7세 안심 육아 솔루션

조기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뒤처진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은 떼야 한다?

영어는 최대한 어릴 적부터 접해야 한다?



“조기 사교육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기숙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부모가 먼저 시작한다고 아이가
먼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영어를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조기교육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아이의 먼저 출발한다고 먼저 도착하지 않는다! **고민 많은 부모를 위한 육아 필독서**

특집 _
코로나 시대의
교육

마스크를 쓰고도 해야만 하는 일

힘든 1년이었습니다.
10년쯤 지나 돌아보면 한 편의
재난 영화처럼 느껴질 듯 합니다.
각자 자기 몫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던 2020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곳곳에서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코로나와 마스크 아래 아이들의
고통과 눈물이 가려지지 않길 바라며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방법을 찾아야 했던 2020년.
하반기 활동만 모아
몇 장의 사진으로 돌아봅니다.





2020.06.09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특히 코로나발 교육 격차가 문제였습니다. 부모 지원이 어렵고 학습과 생활 관리가 힘든 아이들은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이라고 교육 격차까지 생기면 안될 일입니다. 재난시 교육과정 마련하라! 코로나발 교육 격차 해소하라!

2020.08.05



처음 겪는 팬데믹 상황에 사교육
걱정의 회원 사업도 새 길을 모색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 강좌 '등대지기학
교'와 온라인 상담소 '노위리 상
담넷'은 언택트 방식을 시도했습
니다. 수강생 없이 사전 녹화로
진행한 '15기 등대지기학교'와
20주에 걸친 유튜브 콘텐츠 '노위
리 상담톡'!

내년에는 더 자주, 가까이 만나요!

2020.07.07

교육 격차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책임 있는 학교 교육 지원
책'이 절실했습니다. 재난 상황이 닥치자 그동안 묵혀 놔던 숙제들이 하나둘 터지며 실체를 드러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궤 교육격차 방관말고
책임있는 학교교육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2020.07.07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은 줄었는데 교육 과정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힘들 수밖에요. '방역, 안전, 수업, 평가' 이 모든 걸 각각 대응하게 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교육부는 각성하라!

2020.11.04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김씨의 고민'은 계속 됩니다. 대학서열해소 열린포럼! 200명이 넘는 포럼 위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영상 토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미디어국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2020.07.16

출신학교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경력, 성적, 어학... 어떤 노오오력으로든 극복할 수 없는 출신학교라는 벽,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출신대학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최고 80점~최저 40점까지 차등 점수를 주면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나요?



2020.11.18

킬러문항, 불수능...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항 출제로 학부모와 학생은 고통 받습니다. 과도한 학습 노동과 사교육비 지출,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는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도 포함되도록 '불수능 OUT'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한 변별이고,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배운 만큼만 평가하기' 그 당연한 말이 이뤄지는 걸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당연한 것들.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들, 일상, 웃음....
 그것들을 다시 만나길 고대하며 2020년을 보냅니다.
 모두의 소중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1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겨내고, 함께 웃는 그날까지. 돈위리, 노위리!

코로나19發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그것이 알고 싶다!

●글_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사 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4대 입법 과제, 20대 교육 과제, 5대 대책 등 코로나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연중 촉구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 4대 입법 과제

먼저 국회 개원에 맞춰 '코로나19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4대 입법과제를 요구했습니다. 4대 입법과제는 △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 △ 대학서열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 △ 출신학교차별금지법 △ 영유아인권법입니다. 네 가지 법안을 21대 국회에 우선 요구한 이유는 이것으로 대학서열과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교육 격차 중점 원인'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 입법 과제가 힘있게 추진 되면 교육 불평등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원격 수업 학습 격차 해소 5대 대책

한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으로 생기는 학습 격차 문제에도 집중해야 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매일 겪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강득구 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단체와 함께 5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대책 1 | 유치원, 초등 1, 2학년 ‘책임 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 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대책 2 | ‘재난시 교육과정 보금’을 통한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 개선 및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대책 3 | 복지 사각지대 위기 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대책 4 | 대입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 교육 정상화

대책 5 | 학교 정규 교육 시간부터 등원시키는 ‘텐텐(오전 10시 ~ 오후 10시) 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올해 4월 원격수업이 도입된 이래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수업의 질에 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이 상충되는 재난 상황 속에서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원성이 컸던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5대 대책은 학교 교육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하도록 시급히 추진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수면 위에 떠오른 교육 현장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형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20대 교육 과제

4대 입법과제가 다 담아 내지 못한 세부 방안을 전방위로 모색한 것이 ‘코로나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20대 교육과제’입니다.

제1영역 ● 코로나發 학습 격차 극복과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6대 과제

1. 코로나發 학습안전망 마련을 위한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2.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서는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강화
3. “유아 사교육은 불필요, 한글은 초등학교에서 책임진다.”
 -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 1학년 수학 교과서에 한글 교육 정책과 맞지 않는 교육과정 편성 금지 등
4. “공식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 배배 꼬은 길러문항, 주입식 수업 STOP!”,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하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정착으로 수포자 문제 해결!
5. ‘성취평가제·교과활동 및 기록 방식 혁신’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6.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확대

제2영역 ● 코로나發 대입 불평등 및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제도 개선 5대 과제

7. 코로나19로 인한 ‘고3 불리론’을 정밀 진단하고 보

완책 마련

8. 정시 확대 중심의 대입 개선에 따른 사교육 폭증을 진단하고 보완 대책 마련
9. 사교육 부담 낮고, 고교에서 대비 어려운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해 대입전형 단순화
10.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출제 OUT! 수능도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
11. 지역균형·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 완화

제3영역 ● 초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내모는 서열화된 학교체제 개선을 위한 2대 과제

12. 고교 서열화 해소 위해 시행령 개정을 넘어 초·중·등 교육법 개정
13.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및 체제 개선

제4영역 ●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및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3대 과제

14. 경제력·직업·학벌·거주지역 등 부모의 배경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15. 대학 교육의 질은 올리고 서열은 해소하기 위한 ‘대학서열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6. 초·중고 입시 사교육 부담은 낮추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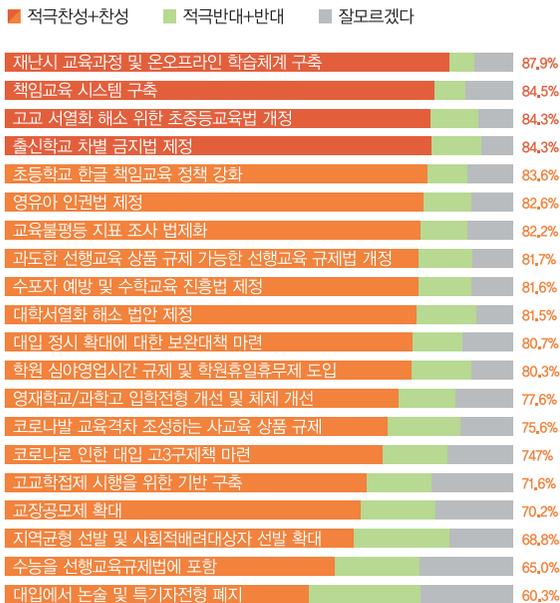
제5영역 ● 나쁜 사교육, 탈법사교육 근절을 위한 4대 과제

17. 온라인 수업 관리반 등 코로나發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 조성하는 사교육 상품 OUT!

- 18. 초등학생에게 고교 미적분, 수능 영어 가르치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STOP!
- 19. 학원 심야영업시간 규제 및 휴일 휴무제로 청소년의 여가 및 건강권 보호
- 20. 아동학대 수준의 조기 사교육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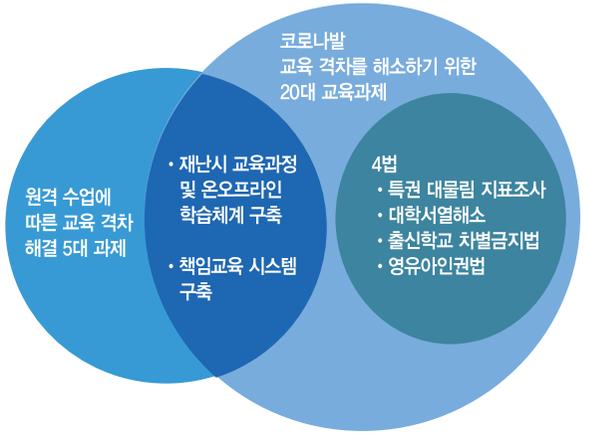
과제가 참 많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설문 결과(1,412명 응답), 20대 교육과제 모두 찬성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 △고교 서열화 해소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교육 격차 근본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와 서열 및 학벌 중심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가 10명 중 8명 이상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으로 드러난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많은 시민이 공감하며, 함께 추진할 뜻을 보인 것입니다.

교육 격차 및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20대 과제 선호도



20개 교육과제 외에 시민들이 추가 제안한 내용은 △사교육이 필요없는 공교육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및 장기적 교육 철학, 정책 수립 △청소년 행복권리권 보장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4대 입법 과제, 5대 대책, 20대 교육 과제 등 언뜻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드러난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에 정부와 21대 국회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코로나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의 '책임교육 강화' 정책을 지지한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자세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 일으킨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요구,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병폐들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이 이 틈을 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재난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아이들과 잘 놀려면

●글_ 정문기(부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부천 송내 지역모임 등대장. 2015년부터 순환동가로 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마음에 자연의 씨앗을 심기 위해 기회가 될 때마다 부모들을 만나 숲 교육을 안내한다. 숲에 다닌 경험을 담은 책 <도시 숲에서 아이 키우기>를 썼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이들 문제는 어른들이 당면한 상황에 비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경제적 상황이 힘들고 아이들은 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놀이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가난해도 이어져 왔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 브뤼겔의 1560년대 작품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 500여 년 전인데도 우리 세대가 놀았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굴렁쇠, 꼬리잡기, 술래잡기 등 주로 몸으로 놀입니다. 놀이는 본능입니다. 몸과 정신에 깊이 뿌리내린 거부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놀이가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두뇌 발달과 인지발달, 정서적인 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이는 괴로움을 잊게 합니다. 친구들과 놀며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지속 가능한 놀이는 서로의 배려로 만들어집니다. 놀이를 통해 자신의 몸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사용된 몸으로 자존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놀이는 오랜 시간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런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놀이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를 3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놀 수 있을까요? 학교 다녀오면 간식 먹고, 학원 다녀오고 저녁 먹고 숙제 하고나면 잠자기 전까지 1시간이나 남을까요? 그 시간도 TV를 보거나 각종 핸드폰 조금하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OECD 권장 놀이시간은 1일 평균 2시간입니다. 밥 한 끼로 영양을 충분히 주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 놀이 방법은 달라집니다. EBS 다큐 ‘놀이의 기쁨’에서는 연령별 놀이를 잘 보여줍니다. 2-3세 전후 반복 놀이를 시작으로, 6세 이후에는 규칙이 있는 경쟁 놀이까지 성장 단계를 밟아가듯 이어지는 아이의 놀이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 못한다고 혼내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놀이를 하게 하면 아이들은 포기를 내면화 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 먹는 아이에게 현미밥을 준다면 잘 먹을 수 있나요?

셋째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는 ‘뛰지 마라’, ‘조용히 해라’ 뒤편하지 마라가 많습니다. 집은 어떤가요? 역시나 ‘뛰지 마라’, ‘조용히 해



라' 등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놀고 집에선 방에 앉아 핸드폰을 갖고 눕니다. 몸 전체를 쓰지 못하는 놀이는 균형 잡힌 감각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뿐일까요? 놀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과의사 김현수 선생님은 놀이에 대해 어른과 아이가 갖는 생각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어른들은 놀이를 '게으름'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은 '창조'로 느낀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나마 열려있던 놀이터, 운동장, 체육관, 공원이 폐쇄되었습니다. 닫힌 공간에 적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소비문화를 극대화 합니다. 어른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들은 핸드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놀이의 변화는 몸의 균형을 무너트립니다. 코로나로 유아기를 보낸 아이들은 즐거운 기억조차 없이 우울함이 일상인 세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놀이로 느낄 행복이 100%인데, 50%만 경험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놀이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가슴에 소망을 품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진짜 놀이는 아이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지지하고 함께할 뿐입니다. 휴지를 뽑으면 혼내지 않고 그냥 두거나 같이 하면 됩니다. 물을 뿌리면 함께 뿌리면 됩니다. 돌을 던지면 위험하

지 않은 방향을 알려주면 됩니다. 진짜 놀이는 자발성, 주도성, 즐거움이 함께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온 몸을 쓰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이 자연이면 더 좋습니다. 중국인 저자 사라 이마스가 쓴 책 <유대인 엄마의 힘>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딸아이의 유치원에 가서 굉장히 놀랐다. 중국에서 흔히 보던, 놀이 매트가 짝 깔린 실내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엄청나게 넓은 땅에 풀밭이며 모래밭 등이 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거침없이 놀이 기구에 올라가고 땅에서 뒹굴었다. 선생님들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의 옷차림을 보고 한 번 더 놀랐다.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도 두꺼운 털옷이나 방한복을 입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밖으로 나오세요. 햇빛이 가득한 날이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밖에서 몸을 쓰며 놀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논다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놀이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고 결정하며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하는 분들처럼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의지가 밀고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근처 숲에 가서 서 '호모 루덴스'가 되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교육 걱정’ 자체가 사라진 세상을 살려면

●글_ 무이스님(제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블교에 입문한 독신 수행자(스님)인 입장에서 육아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가끔 상담을 요청해오는 마음 아픈 아이들 때문이었다. 괴롭고 힘든 데도 감정 표현에 서툴러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워 미술치료 상담 공부도 하고 아동심리에 대한 방송을 듣던 중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알게 되었다. 일체의 정부 지원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에 후원을 시작했고 등대지기학교 강연을 통

해 우리 교육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 성냥개비 하나만큼의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절박감이 들었다.

또한 갈등의 악순환과 심각한 문제행동이 드러나고 나서야 나를 찾아오는 주눅 든 아이들의 눈빛, 육아 고충과 학원비 걱정에 늘 불안, 초조한 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다. 이들의 고통이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라 치부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과열된 입시경



쟁 문화와 일부 무책임한 학교현장, 돌봄 정책, 교육제도 전반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보도 하고, 인연 닿는 곳마다 소책자 나눔을 하던 중에 제주지역에도 등대모임이 생겼다.

현재 제주에서는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등대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부 모임은 지난 11월에 3회차 모임을 한 신생 모임이다. 책을 함께 읽고,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는 성찰을 통해 자녀들과 보폭을 맞춰 나가는 모임원들과의 만남은 또 다른 배움의 현장이다. 모임을 거듭할수록 나 자신은 짐작도 못했던 애뜻한 부모 마음을 알게 된다. 육아 답답한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 많은 교

감을 나눈다. 부모 자신의 욕구와 현실에 대한 성찰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자녀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균형 잡힌 돌봄이 가능하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배움의 참기쁨과 미래 사회의 공생을 위한 뜨거운 관심, 그리고 직접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깨닫는다.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고 유토피아를 살아가라.”

15기 등대지기학교 강연 중에 나온 말들이 사무치게 다가온다. 어른들이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과 냉소주의에 머무는 사이, 아이들도 배우고 익히는 기쁨보다는 공부라는 중압감에 짓눌려 무기력해지고 있다. 최소한 아이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묵인하는 어른이 되지는 말자고 다짐한다. 미미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연대의 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학부모에게 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자녀 교육이 최우선 걱정거리인 현실에, 선입견을 갖기 쉬운 단체 이름이 늘 마음 쓰이기도 한다. 앞에 ‘사’자 하나만 빼서 ‘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더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니 절로 마음이 흐뭇해진다.



나의 용기 뒤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있다

회원
이야기



●글_ 고나영(천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나 이 40, 누군가에겐 불혹의 시기라지만 내게는
깊고 짙은 욕망과 불안이 파리 틀던 시기였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과
욕이 관계를 더욱 진창으로 몰아가던 시기. 바로 그때
두 명의 동생 Y와 H를 만났다. 그 만남이 내 삶을 정
말 크게 변화시켰다. Y는 나를 독서모임에 데려가서 삶
을 돌아보고 태도를 변하게 했다. H는 나를 사교육걱

정없는세상에 데려가 지금 가진 고민과 불안이 내 탓
이 아님을, 사회와 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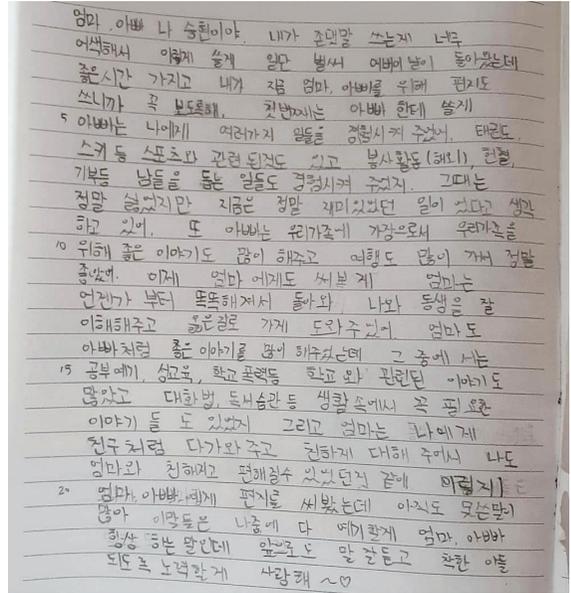
나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민중노래패에서 활
동하면서 '투쟁'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20대를 보냈다.
그런데 결혼하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투사의 패기는 온

데간데없고,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은 자괴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무력감만 가득해졌다. 각자도생만이 답이라는 생각에 젊은 시절 내뱉었던 ‘대동단결’같은 말은 까맣게 잊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

그런 내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만나 참 많이 달라졌다. 아니 어쩌면 원래의 나로 돌아간 건지도 모르겠다.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다’, ‘너보다 못한 친구와는 거리를 뒀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웃과 연대해야 하고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이 있으며, 나보다 못한 -사실 이런 기준조차 부끄럽지만- 아이들과도 함께 돕고 성장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안다.

2018년 ‘교육공약 되찾기 촛불집회’와 2019년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1인 시위’에 참여하면서 아이가 행복하려면 사회제도와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그래서 예민하게 판지 걸고 목소리 내는 행위에 망설이지 않고, 함께 행동하는 것에 더이상은 머뭇거리지 않는다. 물론 나의 용기 뒤엔 늘 우리 단체가 힘있게 받쳐주고 있다.



“엄마가 언제부턴가 똑똑해졌어”

내 주위엔 여전히 나의 모습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이에게 “네가 서울대 못 갈 걸 알고 엄마가 그렇게 시위하나보다”라고 비아냥대는 교사도 있다. 그럼에도 나의 변화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많은 이들이 있고, 특히 가족들이 내 말과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준다. 해마다 2-3회씩 해외봉사를 가는 남편이 그 곳의 아이들에게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해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마흔 넘어서 공부하고 배우더니 삶이 달라졌다”며 나를 인용한다. 아이도 “엄마가 언제부턴가 똑똑해져서 돌아와 나와 동생을 잘 이해해주고 옳은 길로 가게 도와줬어.”라고 편지에 쓴 것을 보고 피식 웃으면서도, 고마웠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한 지향점을 정하고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 이 길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주고, 앞에서 손잡아주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오래오래 걸을 수 있다.





사람들답게 살 수 있는 실천적 지혜

●글_ 이화영(대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6년 전,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알았다. 제주도에 살던 우리에게 초등학교는 그저 공교육의 시작이었다. 1년 정도 지나서야 초등 시기는 부모와 아이들이 대입을 향해 본격적으로 2인 3각 경기를 시작하는 때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 역시 어떻게 이 경기를 아이와 잘 치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공부법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사교육걱정에서 출간한 여러 책이 눈에 띄었고, 특히 수학 공부법은 말하기 좋아하는 딸에게 적당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부족했다. 교육은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분야가 아니었다.

고학년이 된 아이와 어떤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자주 이야기했다. 학교에서는 덧셈을 배우는 단계인데 곱셈을 미리 배우는 친구들에 둘러싸인 아이에게 덧셈만

해도 된다는 엄마의 말은 현실감각 없는 소리였다. “엄마, 이렇게 덧셈만 해서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없어.”

“괜찮아. 덧셈 풀고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문제만 풀어.”

“엄마, 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왜?”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

할 말이 없었다. 아이와 몇 번의 실랑이를 거치며 한동안 무력감에 빠졌다. 내가 살아 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아이에게 뭘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인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 경기도, 대전 등 다양한 곳에 살아보았다. 지역은 바뀌어도 학교와 교육방식은 어디나 똑같았다. 학원을 뱅뱅 도는 아이들의 삶도 별 차이가 없었다. 평가소가 돼버린 학교에 아이를 보내며 학군보다 더 중요하다는 학원군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이에게 집중하던 시선을 나에게로

아이에게는 더이상 내가 해줄 게 없었다. 오히려 내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입시 공부 경험이 전부인 나 역시 공부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나 관찰하기’였다. 그동안 나를 관찰하는 시간과 노력에 너무 인색했다. 아이들 등교시간에 도서관이나 카페로 출근해서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혼자 책을 읽으며 한 달 이상 나를 위해 실천한 운동과 책임기를 꾸준히 기록했다. 책임기와 책모임은 자발적으로 하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작은 애가 초등학교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20살 이상 어린 대학원생들과 시작한 공부는 나의 20대와 확연히 달랐다. 책상에 오래 앉으니 허리와 어깨가 주저앉는 듯 아팠고 눈도 침침해졌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리포트를 작성하고 원





서를 읽는 과정에서 느끼는 몰입감은 육체적 힘듦에 비해 바가 아니었다. 오랜만에 몰입상태에 빠지며 전두엽에 목은 때를 하나씩 벗겨나갔다. 아이에게 불태웠던 열정을 나에게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었다.

아무 말 대잔치, 아무 글 대잔치

이때 즈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교육걱정 회원 한 분이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독서모임을 제안하셨다. 독서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 말 대잔치'와 '아무 글 대잔치'를 실행하는 것이다.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어떤 글을 써도 되지만 '꼭 말하고 쓰자'는 것. 학년이 서로 다르고 친분도 없는 아이들이 모였으니 입이 트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

우여곡절 끝에 2년이 넘는 지금까지 11명의 아이들과 매주 책을 읽는다. 이제 나는 논문심사를 받고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다. 함께 읽은 책만 해도 50권이 넘고 글은 250편도 더 썼다.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글과 사진을 책으로 엮어냈다.

아이들과 톨스토이 단편소설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를 읽은 적이 있다. 종교가 없는 내가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신을 믿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는 천당에 갈까?"

발제를 맡은 아이가 대답하길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다 보

면 주님이 저절로 마음속으로 들어올 건데 뭐가 걱정되겠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지혜로운 대답이 있을까? 글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다는 걸 아이들이 알려주고 있었다. 아이의 말에서 내가 지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있었다.

비인간적인 삶을 거부하는 방법

중학생이 된 딸은 수학을 학원을 다녔는데 모르는 내용이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것을 느끼고 6개월만에 그만두었다. 지금은 독서와 교과서로 다른 교과목을 해결하고 수학은 교과서와 문제집을 풀며 어려운 문제는 엄마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나는 가끔 '잘 되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정도다.

코로나로 등대지역모임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매주 독서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꾸준히 교류할 수 있었다. 독서모임을 진행하면서 알았다. 이전의 나는 내 아이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학원을 뱅뱅 돌고 평가소에 다니는 아이들, 그 평가소 밖의 아이들도 보인다. 내 몸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맞보도록 하는 것, 그것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삶을 거부하는 실천적 지혜이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사교육걱정이라는 시민운동단체가 있었다. 여기에서야말로 진정으로 사람 사는 맛을 볼 수 있다.



빛나는 스무 살, '생각우체부'가 되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글_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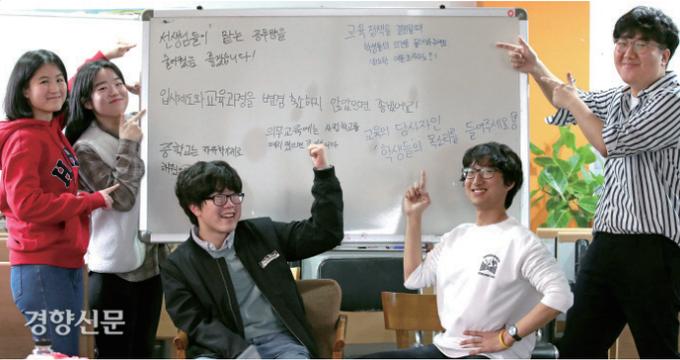
‘생각우체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단체 역사상 최초로(^) 청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스무 살 청년들과 모임을 시작하고, 이름을 ‘생각우체부’라 지었습니다. 입시와 교육, 청년들의 고민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자청하며 지은 이름이에요. 때론 얼굴을 맞대고, 때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며 의견을 모아서 우체부 역할을 했지요.

2월 11일 첫 모임

스무 살 청년들과 사교육걱정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백선숙 회원의 아들 심민기 군. 노워리 자식연합*의 회장답게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평소에도 전파해온 이력으로 친구들과 모임을 결성, 징징이, 모비딕, 겨울, 역신, 미신, 느경, 마튀까지 7명의 청년들이 모여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어요.

* 노워리 자식연합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자녀들의 모임.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년,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세상에 외치려 한다.





생애 첫 언론 인터뷰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사교육걱정의 청년모임에 관심을 가진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제 막 입시 터널을 지나온 솔직한 소감은 무엇일까요?

“교육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교육에는 ‘어떻게’와 ‘왜’가 빠져 있어요. 학교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온 지식이 많지 않아요. 내가 느낀 허무함이 후배 세대에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시든 수시든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취하고, 전략을 짜는 방식의 입시를 물려주고 싶진 않아요.”

“교육이 계층 사다리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금수저’라고 하듯 부모 재력에 따라 교육 수준의 질과 양이 다르니까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각우체부의 첫 우편 업무, “415 총선을 맞이해 고합니다”

4월 초, 생각우체부 청년들은 입시에 대한 고민을 전하며,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낙오자가 있어야 승리가 있는 입시 구조를 바꿔주세요! 젊은 유권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직접 메시지를 정리하고 카드뉴스 이미지를 만들

어 SNS로 알렸습니다. 생각우체부의 첫 우편 업무, 어떠세요?

생각우체부 두 번째 우편 업무, “슬기로운 사이버 대학생활”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져, 마음껏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름과 가을에는 온라인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우편 업무는 대학 새내기들의 생활과 고민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전하는 것이었어요. 징징이와 모비딕의 일상을 통해 ‘사이버’ 대학생활을 엿보았습니다. 생각우체부의 고민은 ‘과연, 치열한 입시를 치르고 들어간 대학에서 하는 공부가 공부다운 공부인가’였어요. 특히, 대부분 온라인 수업과 과제를 하는 것으로 학기를 보내다보니 대학 학문에 대한 실망이 크다면서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영상은 사교육걱정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QR코드로 영상 바로가기)



2020년은 청년들의 삶이 특히 더 곤팍해지는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경제 영역에서 안전지대는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2021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청년들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 일을 함께 할 청년 모임을 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coming soon!!

나는 별무리학교에 재학 중인
고2, **한태림**이다.

7월 23일부터 일주일 간 짧은
인턴 살기가 시작되었다.

오기 전 제일 기대했던 것은
상근자 분들과의 인터뷰였다.
내 꿈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일하는 7일 동안 틈틈이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내 꿈을 살아내는 사람들

● **한태림(별무리학교)**

어떻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입사하게 되었나요?

최수일 저는 수학교사를 27년 했는데 20년 동안 주입하고 훈련시키는 방식의 수업을 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의 주도권을 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공부하면서 수학 선생님들이 변하도록 도와야겠다 생각한 뒤로 학교에서 나왔어요.

나성훈 2015년에 우리 단체에서 수포자를 구하려는 운동을 크게 했어요. 제가 수포자였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같이 해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어요. 전에는 비영리 그룹의 홍보 일을 했어요.

최승연 십 수 년 전에 서울 중계동으로 이사 왔는데,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밤 9시에 학원 가방 메고 바쁘게 다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 딸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2009년 한겨레신문에 등대지기학교가 소개돼서 강의 듣고 지역모임을 하면서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2013년 상근자가 되었어요.

백성주 우리 동네 부모들이 다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 우리집 4명의 아이와 친구들의 친구들까지 이삼십 명씩 맨날 집에 놀러왔어요. 그래서 무료 공부방을 하게 됐죠. 7년 정도 했는데, 너무 잘 돼서 직원 5명을 둔 지역아동센터가 됐어요. 그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모금 담당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봤어요. '모금은 과학이요, 예술'이었는데 저는 과학과 데이터 다루는 일을 좋아해서 들어왔어요.

상근자 선생님들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처음부터 교육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다가보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교육 문제를 발견하고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김초아 교육 불평등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들이 받게 되는 교육 혜택이 차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조사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을 예정이에요.

최수일 올해 새로 만든 수학교육혁신센터 일이지. 그동안 총 4년에 걸쳐 중학교 3개 학년 수학 대안 교과서를 제작했어요. 더 많은 학교



에 교과서를 보급하고, 그에 걸맞는 수업 방법을 연구하려고요. 서로 배우는 교사 세미나팀도 전국적으로 20개 가까이 생겼어요. 그 일을 수학교육혁신센터가 하고 있어요.

후, 역시 다들 전문가들이었다. 나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 되었다. 교육시민운동 단체가 여러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만의 특징을 속속들이 알고싶었다.

단체 미션이 '사교육 고통, 입시 경쟁 해결'인데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승연 교육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과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는데 방에 빗물이 새고 있어요. 건축할 때부터 부실공사였죠. 부실공사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지금 당장 빗물이 떨어지니까 대야를 받치든가 걸레로 닦아야 해요. 저는 이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많은 문제를 한 번에 못바꾸면 당장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죠.

일하면서 보람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최승연 온라인 상담 후에 회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요. '내가 놓쳤던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도움이 됐다'는 분이 있을 때, 우리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호응해서 후원으로까지 이어질 때, 우리와 손잡고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실 때 가장 보람되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일하면서 새롭게 갖게 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운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요?

나성훈 저희는 회원들과 유대감이 꽤 깊어요. 동역자처럼 이 운동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상근자 26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지 않아요. 회원들과 힘을 합쳐서 나도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죠. 학생 유익을 원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오길 바라는 사람을 점점 늘려가야 해요.

상근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 이상의 생각과 고민이 생겼다.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낼 수 있나, 인식 변화와 제도 변화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를 수 있을까, 자신이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에 잠겼다. 스스로 배우고 단련하는 일을 평생 해야겠다.

상근자 선생님들은 소소한 대화나 식사 등 일상에서도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 바라고 또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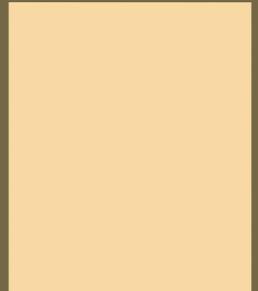


교육의봄

“ 교육의봄은
출신학교 차별 없는
기업의 채용 문화를 이끄는 운동입니다.

그 길에 후원자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요. ”

후원하기 bombombom.org



Since 1974, 콘크리트 제품 외길!

“ 이레콘텍(주)은
고객만족의 꿈을 실현하도록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

- 보강토옹벽 블록
- 호안 블록
- 식생 옹벽
- 콘크리트 벽돌
- 잔디 블록



Erae Contec Co., Ltd
이레콘텍 주식회사 (구, 삼형제산업)
TEL. 061) 383-8220~1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있어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고발로부터 기소까지 5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 20년
공수처설치 입법청원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23년
1994년 창립 이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한국사회를 바꾼 26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긴 싸움에
시민이 함께 세상을 바꿨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든든한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bit.ly/GoPSPD

02-723-4251 we@pspd.org



정부지원금 0%, 1만 5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책 언니

언니네 정책방

어려운 교육 정책 이야기를 쉽게 번역해 드립니다. 정책 내용이 어려울 땐, '정책 언니'를 찾아주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블로그와 각종 매체에서 만나요!

2020년 교육불평등을 파헤치다

●글_ 정책 언니 채송아



2020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집중적으로 파헤친 문제는 '교육불평등'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실태조사 후 비판보도를 하면 국회의원들은 국감 현장에서 현장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해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합니다. 국감 동안 발행한 보도자료만 무려 11편, 수록된 데이터 분량이 엄청난데요. 갑갑한 문제 투성이지만 비판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 걸음! 함께 살펴볼까요?

유치원 행세하는 학원들

우리가 '영어유치원'이라 부르는 곳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에요.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10년 새 4.4배 늘어 288개나 됩니다. 이들의 교습비 평균은 105만원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면 4년제 대학등록금 평균(674

만원)의 약 2배. '놀이학원'을 표방하면서 실상 수업 내용은 원어민 이중언어수업, 원서 읽기 등 영어학습의 다른 형태인 곳도 늘고 있어요. 급기야 유아대상 수학학원, 과학학원도 생겼습니다.

이 학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흡사 유치원처럼 유아교육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학원법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시설과 설비, 급식, 교육과정 운영 등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데, 이들은 법적 지위가 '학원'이라 이 모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교사들도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니고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아 대상 학원들,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올해 교육부 적발 선행교육 광고는 몇 건?

선행교육규제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되었어요. 이때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시장 선행학습 '광고'도 법률상 금지되었고요. 학교의 선행교육은 많이 나아졌지만, 학원 선행상품 광고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선행학습 광고 건수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고작 31건.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을 제대로 감시하고 이를 처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무엇보다 사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 앞선 진도를 못가르치도록 선행교육 규제법을 개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사교육 강사가 나선 공교육 입시설명회

교육부는 2019-2020년까지 일선 학교에서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가 초빙된 사례가 8건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사교육걱정 조사로는 87건이나 됩니

다. 공교육 측에서도 자체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상담 경험도 풍부한 111명의 대표강사가 활동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사교육 강사들에게 의존하면서, 이들의 강의나 컨설팅을 홍보해주는 판국이죠. 교육부는 사교육강사가 공교육 입시설명회에 나서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공교육 강사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킬러문항, 오답률 97.1%

현직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수학 가형 30개 중에서 3문항, 수학 나형 중에선 2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나형 30번 문항은 오답률이 무려 97.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학의 킬러문항은 대학과정을 선행해야만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대학별 논술고사 범위를 제재하는 것처럼 수능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재학교 입학생 중 54%, 3대 프랜차이즈 학원 다녀

영재학교는 입학부터 운영까지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2020학년도 기준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828명)의 68.5%가 서울·경기 출신인데요. 사교육 밀집지역 10개 시·구 출신들이 전체 입학생의 43.6%를 차지하고요. 더 놀라운 점은 전체 정원의 54.6%가 강남의 특정 3개 학원 출신이에요. 영재학교를 지망하는 중3의 25%가 월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요. 영

재학교는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해 국고로 설립된 학교이므로 해마다 늘고 있는 의학계열 진학만큼은 전면금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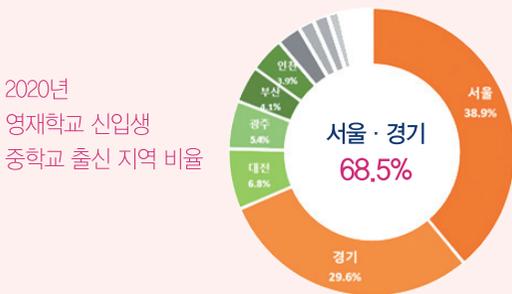
전국단위 자사고, 과반수가 넘는 수도권 출신

전국단위 자사고 9개교 2020학년도 신입생 중 53.9%도 수도권 중학교 출신입니다. 서울에는 강남·서초·송파·양천 출신이 50%, 경기지역에서는 용인·성남·수원·고양시 출신이 62%예요. 이에 반해 민사고의 강원도 출신 학생은 5명에 불과해 지역인재전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고요. 작년 11월 교육부는 2025년까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서울대생 고소득층 비율 62.6% 저소득층보다 3.4배 높아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인정액 3구간(월 3,324,222원) 이하를 저소득층, 7구간(월 7,123,761원) 이하를 중위소득층, 8구간(월 9,498,348원)에서 10구간까지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해본 결과, 놀랍게도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은 62.6%로 저소득층(18.4%)의 3.4배나 돼요.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구조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통계예요. 이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 추진이야말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돼 교육부는 지난 11월, 영재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교육 격차를 덜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가 이뤄지기도 했고요. 예년의 국감에서는 우리 단체의 문제 제기 덕분에,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출제 관행을 바로잡고 영어유치원이라는 편법적인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죠. 바이러스가 온세상을 뒤엎은 혼돈의 시절,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달려라, 노워리!



대학서열해소, 214명 시민들과 함께 길 찾기에 나서다

●글_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

올해 10월과 11월에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이 열렸습니다. 토론회 형식으로 3회를 진행하고 마지막 4회는 종합토의였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 번 개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두 달 동안 강행군을 펼친 건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포럼을 시작하면서 '시민포럼위원'을 모집했는데요, 처음 목표했던 100명을 훌쩍 넘어 214명의 포럼위원이 모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서열해소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교육 현실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이 머리 아프고 지치는 사안에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포럼위원 모집에 보여주신 뜨거운 반응을 통해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의 증착역, 대학 서열

대학 서열 문제가 왜 나쁘냐를 설명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방학에도 학원, 식사를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즉석 밥으로 때워 가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극심한 성적 스트레스에 빠지는 이유가 서열이 높은 대학에 가려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30.4%가 자살 충동을 느끼며 죽고 싶다 생각한 이유 1위가 학업문제(38.6%)였습니다. 공부가 호기심을 채우고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수와 등수를 올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서열이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현실. 대학서열화는 과열 경쟁도 문제지만, 진정한 공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4개국 대학생들이 자신의 고교 시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80.8%가 전쟁터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그 비율은 10~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해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왜곡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노동 분야 개혁과 병행하되 교육 개혁부터 시작해야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의 마지막 목표는 취업입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하고 취업이 어렵다 보니, 뉴스에서 잇을 만하면 나오는 직장 상사 갑질 사례나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욱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습니다. 그러니 대학서열해소와 같은 교육 개혁은 당연히 노동 분야 개혁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으니 취업에서 대학 간판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이고, 취업에서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으니 서열 높은 대학에 들어가고 기를 쓰는 것입니다.



대학서열해소와 노동 분야 개혁 중 어느 것이 먼저 해결되길 기다려서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린 나이 때부터 지나친 경쟁은 안 좋잖아?’, ‘적어도 교육은 교육다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 대학서열해소가 오히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학 네트워크만으로도 서열 완화 효과 일어나

대학서열해소 1차 포럼에서는 서열을 해소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포럼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의외로 서로 비슷한 내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대학을 묶어 ‘대학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대학들이 공동 입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여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다만, 거점 국립대학부터 먼저 시작할 것인지 국립대와 사립대가 처음부터

함께 참여할 것인지, 각 지역 대학들의 네트워크부터 시작할 것인지,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구성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방법론은 달랐습니다.



제2차 포럼에서는 대학 네트워크의 입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 대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입시를 치르면 그 자체만으로도 서열 완화 효과는 나타납니다. 네트워크 대학들은 같은 입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대학들 사이에서는 입학성적에 따른 서열이 사라집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이 많을수록 입학생에게 요구되는 성적 커트라인은 낮아집니다. 네트워크의 성적 기준을 입학생 정원에 맞춘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럽처럼 최소한의 성적 기준만 통과하면 입학시키고 추첨을 한다든지, 졸업할 때까지 탈락시켜 나가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는 추첨이나 졸업정원제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3차 포럼에서는 대학 네트워크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해야 이 대학들이 좋은 대학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비율이 높는데 사립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대학 네트워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종합토의에서는 1차-3차 포럼에서 나온 주요 쟁점으로 포럼위원들이 토의를 벌였습니다.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 이상과 현실을 종합한 합리적 대안

최종적으로, 포럼 결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2020. 12. 17)에서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 1단계, 2030년에 2단계, 2035년에 3단계로 약 15년에 걸쳐 가시적인 대학서열 해소 효과를 거두는 종합안입니다. 로드맵의 중심 줄기는 공동입시를 실시하는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부터 참여시킬 것인지와 대학 네트워크의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론과 현실론이 존재합니다.



먼저 대학의 참여 범위에 있어서, 국립대부터 네트워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대학서열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수도권 사립대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입시 방안에 있어서는, 이상적으로는 대학 공부를 하기에 최소한의 성적만 요구하는 것이 입시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입학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어서 대학 네트워크의 입학 정원 수준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1단계에서는 국립

대가 중심이 되고 사람대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 두어 점점 참여를 넓혀가는 것, 그리고 입시에서도 1단계에서는 우선 대학 네트워크의 정원 수준으로 성적 기준을 적용하되, 2, 3단계로 갈수록 최소한의 성적 기준으로 완화해가는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초기에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대학 네트워크를 안착시키고 대학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이상적인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는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길은 있다

대학서열해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에 연관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단순한

처방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입시를 실시하고, 이 대학들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여 선발효과가 아닌 교육효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밀한 정책 로드맵을 통해 초기에는 참여 대학의 범위나 입시 방안에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고 점차적으로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실현한다면 다음 세대에는 왜곡되지 않은 교육 제도를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본격적인 길 찾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서열해소의 방법을 알고 사회 전체적인 목소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 문제에 관심 가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과 전문가 214명 포럼위원 • 강민석 강성우 강승규 강영구 강유진 고경보 고유진 고지연 광객에 구은정 구현주 구희현 권신영 권오현 권현수 기아정 김경관 김경태 김계화 김교효호 김기수 김덕신 김도엽 김동은 김두형 김병희 김문희 김미라 김미선 김민애 김상규 김선열 김철희 김성진 김수희 김시진 김영숙 김영주 김영현 김용섭 김우일 김은형 김은선 김재우 김재은 김정민 김종우 김준 김지연 김진혁 김진훈 김진희 김찬미 김철희 김태선 김태성 김태정 김태훈 김해인 김현경 김형식 김형태 김희경 김혜옥 김효근 김효순 나송이 나유진 남궁옥 류광일 류기락 류정하 문선중 민주희 박근 박민영 박보영 박복남 박선영 박성주 박양훈 박요섭 박은선 박양숙 박정원 박주민 박지연 박진주 박태연 박혜숙 백선숙 백성주 백승미 백형국 서배성 서원빈 서정우 서중학 서지원 서한별 성희선 손고은 손수경 손승현 손연주 손정안 손준현 손해진 송미소 송선영 송이랑 송은미 송진영 송희영 송환용 신옥진 신진영 심우기 안백합 양경원 양승남 양희성 양희창 양익환 오미경 오복분 옥선희 용은중 유영의 유정혜 윤경미 윤예성 윤지상 윤혁 은수진 이경재 이경태 이경화 이다울 이동우 이동익 이동훈 이수연 이신욱 이연옥 이예자 이예진 이원별 이원미 이윤경 이은선 이은영 이은진 이인성 이재영 이재호 이진희 이현기 이현주 이현빈 이혜주 임재택 임재홍 정범준 장승준 장승진 정윤석 장진주 장현정 장형진 장희재 전대희 전종호 정문기 정민경 정영수 정유경 정윤리 정재영 정진화 정태신 조남일 조선희 조윤경 조윤수 조정아 조창원 조혜연 조혜영 조혜정 진성에 진수정 차이름 최금자 최상근 최선정 최원희 최유미 최이현 최재훈 최택진 최형록 추시현 하수현 한디티 한성준 한지은 한지우 한지혜 허인희 홍성미 황기관 황일식

대한민국 교육에 68혁명을



어느 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한 학생의 메일이 전달되었다. 전남 장성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김누리 교수의 책을 읽고, 우리나라 교육에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에 시민포럼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죽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 토론했다. 어떻게 우리 단체를 알고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만나보았다.

●서원빈 대학서열해소 시민포럼위원, 전남 장성고등학교

Q.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서원빈입니다. 저는 '삶이 곧 배움이다'라는 가치관을 두고, 학교의 모든 활동이 '대입'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주최한 대학서열해소 2차 포럼에서, 한국 교육에 느끼는 환멸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2년 동안 교육 혁명을 위해 학생으로서 활동하고, 제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후세가 받을 교육의 변화를 위해 흠뻑 지 묻히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Q.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입시 경쟁으로 한국 교육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주입식 교육은 참된 배움이 아니라 생각하고, 독서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사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김누리 교수님의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곧장 도서관에 달려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다. 한국에서 68혁명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육 68혁명을 일으키겠다 다짐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 교육이 가진 문제점과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 교내 발표시간과 SNS를 통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혁명을 원하는 학생들의 단체인 '교육혁명플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만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교육걱정을 처음 만난 건 2017년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원을 다 끊고 자기주도학습 방법에 대해 궁금하던 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쓴 책 <학원없이 살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김누리 교수님께서 인연을 맺어 주신 박은선 변호사님을 통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포럼위원 모집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이루려는 미션은 대중에게 당연시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학 서열 해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학 서열 해소는 전인교육을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현재 학교의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무시한

9등급제 상대평가입니다. 입시제도는 과도한 변별을 요구하며, 문제의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암기해서 적용하고, 문제 유형을 훈련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나쁘다 싶으면 시험을 잘 치도록 사교육을 받습니다. '진정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통해 어떤 학문과 융합하여 무엇을 더 탐구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할 시간이 아예 없거나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의 켓바퀴를 제 동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을 키우는 교육,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은 주입식 수업과 문제 풀이 공부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해, 대학 서열 해소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학 서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까요?

저는 문제 상황을 바꿔보려는 의지로 가득합니다. 사교육걱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 대중-전문가-실무자의 팀워크를 중요시합니다. 대중으로서 학생들이 현재 교육과정과 학교에서 받는 수업 방식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고민하고 학교 밖 세상에 소리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혁명플랜' 단체 활동이 학생들을 움직이게 할 신호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나 기자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변혁의 움직임에 대해 널리 알리고 설득하면 좋겠습니다. 대학 운영과 구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지 의논하여, 대중들에게 대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Q.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학력주의로 무장된 한국에서 대학 서열 해소가 가능할까 막연히 생각했다면, 이를 위해 실제 노력

하는 어른들을 보며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와 여러가지 학생 선발 방식, 대학입학보장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들으며, 대학 서열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알았고, 각 방법의 장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도 방법을 더 알아보고, 교육의 변화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Q. 우리나라 교육을 맡고 계신

부모, 선생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행복'에 대해 많이 사유했습니다. 지금보다 어릴 땐, 먼 길 끝에 직업적 성취와 명예를 가지면 행복이 제게 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옳다고 생각한 길로 갑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저 복종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깨달을 때마다 희열을 느낍니다. 절차를 통해 바꾸려 노력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분별합니다. 행복합니다. 부조리한 부분에 반기를 드니 사람답게 산다고 느낍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만, 배우는 방식과 평가 방식을 달리하여, 시험을 위한 공부라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의 발견〉 활용 수업 컨퍼런스에 가보았다

●글_ 박윤혜(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보국)

지난 10월 28일, 창비50주년 홀에서 '언택트 시대 교육의 대안, 〈수학의 발견〉 활용 수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수학의 발견〉 완간 이후, 중학교 수업에서 대안 교과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였어요.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전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기존 교과서로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대안 교과서 〈수학의 발견〉 활용에 더욱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수학의 발견〉을 활용하여 학생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3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에 응한 268명 학생 중 73.9%가 기존 교과서보다 〈수학의 발견〉이 수업 참여와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응답했고, 수학교사 25명 중 80%는 온라인 상황에서 기존 교과서로

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어요. 교실을 깨우고, 학생을 깨우는 희망의 현상이었던 〈수학의 발견〉 활용 수업 컨퍼런스!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1부 시이—작

조숙영 선생님(시흥중학교)과 이선영 선생님(신일중학교)께서 사회를 맡아 주셨어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께서는 축사로 함께해 주셨고요. 이어서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이신 최수일 선생님께서 코로나19 시대의 수학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수학 교육은 문제가 있었지만 더욱 날 것으로 드러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브(QR코드)를 참고해 주세요!



2부 수업공개 (3가지 수업모델)

2부에서는 실제 수업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황선희(혜원여자중학교), 이경은(영림중학교), 김성수(덕양중학교) 선생님이 <수학의 발견>을 활용해 실제 수업한 사례를 전해주셨습니다. 같은 교과서를 활용했지만 조금씩 다른 수업 방법을 비교해볼까요?

1 - 과제형 사전에 탐구 과제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미리 풀어 보게 합니다. 과제를 푼 학생들이 사진으로 찍어 공유 드라이브에 올리면 선생님이 확인합니다. 이후 화상 수업에서 만나 논의하여 사고를 발전시키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라고 질문하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하게 합니다.

2 - 대화형 사전 과제 없이, 실시간으로 과제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바로 학생의 답안을 선정해서 논의를 만들어가므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좁지만, 한 가지 문제를 숙고할 수 있고, 교사에게는 순발력을, 학생들에게는 긴장감을 주는 능동적 자세를 이끌어 냅니다.

3 - 모둠형 교사가 2-3개의 탐구과제를 준비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을 모둠 활동 과제로 정해 그룹별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교사는 모둠별로 피드백을 주고,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요. 끝난 후, 전체 논의를 한 후 수업 목표와 연결지며 마치는 방식입니다.



3부 토크쇼

토크쇼에는 3분의 선생님과 2명의 학생이 나와 수업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과제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수업을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수학의 발견>은 방향성을 가진 과제를 제시하고 그걸 기초로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교사 설명미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 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수업할 맛이 났습니다.” **교사 황선희**

학생들의 이야기도 <수학의 발견>이 나아갈 바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무조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쓰게 하더라고요. 낯설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학생 강민지**

“이 답이 왜 나왔는지 찾아 보라고 해서 좋았어요. 틀릴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자신감도 생기고요.” **학생 이서은**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친구들과 함께 풀었어요.” **온라인 반응**



<수학의 발견>은 학생의 다양한 사고를 끄집어내어 견고한 수학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방식도 강의식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교사들도 매 주 모여 함께 준비하고 공부하며 수업변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수학교육혁신센터는 전문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수업 및 평가 계획안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속도 경쟁으로 객관식 답을 요구하는 평가가 여전하기에 주입식, 암기식 평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텐데요.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를 확대해가고 새로운 수업 모델 발굴과 확산, 평가의 변화를 모색해 나갈 수학교육혁신센터, 많이 응원해주세요!

● 이상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국) 적당한 성적에 맞춰 지방대를 갔다.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 학교총장 비리 및 반값등록금 시위, 친구들과 수다에 재미를 붙이며 지냈다. 그러던 중 폭력과 평화, 정의와 사회적 배제, 교육과 공동체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듣게 되면서 교육 문제를 공부했다. 학부모 강좌 기획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싶다.

엷히다 만난 인연 신입 상근자의 등대지기학교 기획 이야기

평화 교육과 엷히다 만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저는 인연을 믿습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엷힐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만남. 어쩌면 그 만남이 저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으로 데려다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봄의 따뜻함과 여름의 더위가 공존했던 5월 11일, 입사일 날 씨처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익숙함과 낯섦이 섞인 모순의 공간이었습니다. 익숙한 기분은 제가 만난 인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 학교폭력은 어른이 만든 부조리한 사회의 결과라는 내용의 강의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 평화 교육을 공부하며 현장 활동가와 맺어진 연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가 살아온 세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대중운동'이라는 단체의 미션은 낯설고 의아했습니다. 책임 있는 공교육 실현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꿈은 허무맹랑했습니다. 저는 제도 밖에 희망이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단체의 모습은 제도권 교육에 타협하며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저버리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의심 가운데 사교육걱정의 대표 강좌인 등대지기학교를 만나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얽히다 만난 등대지기학교

강좌 업무를 맡게 된 제게 15기 등대지기학교 기획은 거부할 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담당 업무 때문이기도 하지만, 등대지기학교에 담긴 의미들이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첫 기대는 등대지기학교를 향한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뭐기에 13년 동안 15번이나 하는 거지?”

단체를 잘 모르는 저는 오랜 역사를 지닌 등대지기학교의 존재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을 찾으려 단체 역사를 공부하던 중에 <1기 등대지기학교 졸업문집> 머리말에 적힌 송인수, 윤지희 전 대표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저자 황주석 님의 생협 공동체 정신이 함뿍 담긴 ‘등대’라는 표현에 ‘학교’를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중략] 학습과 삶과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졌고, 그렇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대지기학교’가 탄생했습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생명보다 돈을 선택하는 현대 사회에서 학생의 생명을, 사람의 삶을 비추는 등대 같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당면한 현실에 당장 답을 주지는 않지만, 학습과 삶과 이야기를 촘촘히 엮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육 공동체를 창조하겠다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 갈망은 현재 우리를 둘러싼 코로나 시대의 교육 문제로 데려갔습니다.

등대지기학교와 얽히다 만난 코로나 시대 교육

등대지기학교는 사회적 이슈에 질문을 던집니다. 교육 제도는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올해 등대지기학교 주제는 ‘코로나’로 정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열쇳말이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코

로나 시대의 교육 문제를 다뤄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고민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교육운동가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가르침에 대한 좋은 대화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파커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중) 코로나와 관련해서 언택트, 에듀테크, 디지털 뉴딜 등 트렌드 담론이 넘쳐날 때, 현장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지금 겪는 코로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깊이 있게 대화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질문의 여정에 한 걸음씩 발 디딜 안내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의 꼬리 끝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안내서’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체의 미션처럼, 코로나로 고통 받는 모든 이와 연대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진심을 담은 안내서는 교육 현장의 희망과 선한 세상을 바라는 갈망으로 안내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과 얽히다 만난 교육 현장의 희망

저는 갈망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 있는 선한 세상을 향한 바람.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바람이 같은 갈망을 지닌 공동체이자 희망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으로 저를 데려다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15기 등대지기학교에 신청한 370여 명의 수강생은 희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는 세상’, 변화가 요원해 보이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모든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함께 모여 공부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존재가 우리 교육의 희망이라 생각했습니다. 낯설고 의아했던 단체의 꿈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 꿈꾸는 강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학습과 삶이 한데 얽혀 희망을 만드는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어두운 현장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교육시키려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맞별이 가정입니다. 아이는 초등 4학년 외아들입니다. 아들의 속도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사교육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퇴근 후 숙제도 봐 주며 집에서 수학공부를 하였습니다. 잠깐 공부방에 보내 봤지만 적응하지 못했고, 문제집만 푸는 것에 질려서 아토피가 심해져 그만 두었어요. 공부를 강요하거나 많이 시키진 않았고 그림책을 좋아해 생후 2~3개월부터 지금까지 그림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걱정은 아이가 3학년 때부터 '학교 가기 싫어, 공부가 너무 힘들어'를 입에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기질상 많이 움직이고 체험하는 놀이식 활동수업을 좋아하는데 3학년이 되자 필기하고 암기하는 양이 많아져 공부에 흥미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선행학습을 해서 쪽지시험도 잘 보는데 제 아이는 속도가 느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엄마,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할 수도 없고, 공부 잘 하고 싶으면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건 싫다고 합니다. 공부를 봐 줄 때는 혼내기보다 틀리면 다시 해 보라며 꾸준히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걱정은 초등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상상력이 풍부하며 창의적이었는데 4학년이 되고 학교에서는 시험 점수만으로 평가하니 아이는 공부 못하는 자신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능력과 강점을 키워주고 싶는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엄마로서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은 아닌가, 학습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 너무 소극적인 태도였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을 힘들어 하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이가 4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엄마와 그림책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니 부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강점이 묻히고, 지식 위주로 평가받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이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학습이 뒤쳐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멈춤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만 앞서 나가는 건 아닌가 싶어도 이 시기에는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며 온라인 학습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교육 의존보다도 자기관리능력, 자기 주도력이 길러질 기회를 갖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가 학습부진 때문에 자존감에 상처를 크게 입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학습 능력으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은 극소수입니다. 1등조차도 다음 시험에서 2등이 되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질 거예요. 자존감은 상대적이고 각자의 재능은 다르기에 아이의 장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 **자녀 교육, 노워리 상담넷에 물어보세요!** 노워리 상담넷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나누는 좋은 이웃들의 커뮤니티이자 고민과 걱정을 상담하는 온라인 상담소입니다. 끝없는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 받는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고 격려하며 건강한 자녀 교육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글은 한 회원께서 '노워리 상담넷'에 문의하신 질문과 상담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 정리한 답변입니다. (QR코드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첫 번째로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아이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초등 3학년 이후부터 기질과 맞지 않는 수업으로 공부에 흥미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더 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공부가 힘든지, 맞지 않은 수업 형태라 집중이 어려운 것인지, 자꾸 다른 친구와 비교해 자신이 느린 것 같아 어려움이 있는지 등, 학교 가기 싫은 이유도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인지, 관계의 어려움이나 다른 힘겨움은 없는지 충분히 나누었으면 해요. 무엇보다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보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쏟아낼 수 있도록 들으면서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감성적이라 더 따뜻한 위로가 있어야 하고, 충분히 마음이 다독여진 후 에너지가 생겨야 뭐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초 등 공부는 추후 동기가 생겼을 때 학습개념이 부족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 학년에서 익혀야 할 개념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공부 의지는 부정적 감정이 적을때 생겨나거든요. 감정을 잘 돌보며 든든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영어 단어 3개 외우기'를 힘들어 한다면 성향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을 시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좋아하는 그림책을 영어 그림책으로

듣고 읽도록 시도해보면 좋겠어요. 엄마가 굳이 아이에게 영어로 읽어 주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각 교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아이들은 그 전 학기에 배운 개념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전 학기 또는 전 학년에서 배운 개념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새로운 개념을 익히는 게 필요하지요. 최수일 선생님과 전국수학교사모임에서 만든 <개념연결 초등 수학사전>과 <개념연결 만화 수학 교과서>도 학년별로 있으니 추천드려요.

다 음으로 학교에서도 아이의 강점이 부각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6월 10일에 상담넷 칼럼에 올라온 '어른은 아이의 미용실 거울이 되어야'를 읽어보셨나요?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지금 그대로 괜찮아."라는 말이 진짜 괜찮은 것인지, 지금 모습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건지 돌아봤어요. 아이가 원하는 건 그저 지켜 봐주는 부모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마음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달려라, 노워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은퇴는 없다

교육의봄 공동대표 송인수 · 윤지희 인터뷰

12년 간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직을 내려놓은 송인수, 윤지희 두 사람이 새로운 교육운동을 시작했다. 새 운동 '교육의봄'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을까. 지난 10월 출범식 후, 매주 계속되는 채용 실태 파악 포럼으로 바쁜 두 사람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 인터뷰_ 채송아(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보국)

교육의봄

교육의봄은 출신학교 차별 없는 기업의 채용문화를 확산해 우리 교육에 봄을 이끄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교육의 봄을 꿈꾸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bombombom.org 02-6338-0660

● **교육의봄 설립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8년 출범식 이후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윤지희 |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2년 전 '교육의봄'을 출범만 시켜놓고 지속하지 못했던 부채감이 늘 있었어요. 또 하나는 현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사교육걱정인 운동을 해서 비교적 잘 고안된 공약이 만들어졌는데 연거푸 무산되었지요. 민심이 새로운 교육을 적극 수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었습니다. 결국 교육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도는 기업 채용의 변화에 달려있다 생각했어요. 이 꼭대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 결심한 거죠.

● **'교육의봄'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송인수 | 2018년 5월 출범한 '교육의봄 10년 플랜' 사업을 단체 이름으로 계승했어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의 봄'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고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남북 간에 봄이 왔음을 실감했지요. 그 와중에 저희 마음속에 어떤 아픔을 느꼈어요. 우리 교육은 아직도 겨울이구나, 교육의 봄은 언제 온단 말인가? 우리 스스로 봄을 맞는 준비를 하자고 마음먹는 과정에서 탄생한 이름이에요.

● **재단법인 형태를 갖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전개되나요?**

윤지희 | 공신력을 갖춘 기관으로 법인의 형태를 갖춰야 하니 사단법인 아니면 재단법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요. 사단법인은 활동 능력을 보고 정부가 승인해주는 것이라 3년 정도의 활동 결과를 보여줘야 했어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활동 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재단법인이라고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창립부터 법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곧바로 대응하거나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는 방식과 달리, 주로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할 계획이에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별개로 교육의봄을 독립된 단체로 만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단체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윤지희 학생과 부모의 입시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미션은 동일합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고자 교육의봄을 독립한 것이죠. 교육의봄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이 있어요. 사교육걱정이 늘 교육 현안에 대응해야 하니 이 운동을 1/n로 해야 하는데, 교육의봄은 이 과제에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법 제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실제 기업 문화가 바뀌도록 노력합니다. 교육의봄을 통해 현재 3%에 불과한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 몇몇 후원 기관들과 개인이 나서서 적지 않은 후원금을 출연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셨는지요.

송인수 사교육걱정의 보완적인 새 운동의 필요가 분명한 이상, 돈이 없다는 게 머뭇거릴 이유는 못되죠. 때마침 우리 운동에 뜨겁게 호응해주시던 더작은재단의 오승환 대표님이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는데 일체의 재정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이끌어낼 때, 마이다스아이티 대표께서 이를 유심히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새 일의 뜻을 확인하더니 흔쾌히 출연을 결정하셨지요. 익명의 후원자도 나타나고, 임미령, 송상수 선생님 같은 사교육걱정 후원자들도 이례적인 후원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자족하지 않고, 재정의 절반 이상은 시민들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 ‘출신학교 차별 없는 기업의 채용문화 변화’가 교육의봄 미션인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윤지희 기업 채용문화의 변화를 원한다면 현재의 현실을 먼저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로 채용 실태를 살펴보는 과정을 밟을 겁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권, IT기업, 외국계기업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야지요. 미래지향적 채용을 하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널리 알리는 일도 해야겠고, 기업과 교육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할 것입니다.

● 오랜 세월 교육운동을 해 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윤지희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해 왔던 일이 ‘운동’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줄 몰라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때로 노력한 만큼의 진전이 없을 때 겪는 절망감이나 분노감이 너무 커서 마음을 가누기 어려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도 가느다란 불빛이 있어 다시 길을 나서게 되더라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힘은 결국 사람이고요.

송인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사람들 간에 불화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런 불화 속에서 인격의 바닥을 경험하고 깊은 내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를 바치겠다 약속하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포기할 일이 없을까요? 되돌아갈 수 없고, 오직 앞길만 생각하니 고통 속에서도 전진하게 됩니다. 1995년부터 아침마다 갖는 새벽 기도 시간이 제겐 절망을 넘는 큰 힘입니다.

●●● 오랫동안 교육 운동을 해왔는데, 이젠 쉬고 싶지 않냐는 질문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교육 운동에 완성이 있을 리 없지만 길이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교육의봄’ 출사포에 쓰신 메일 한 구절처럼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은퇴란 없는 법’이니까.

재정보고 2020

2020년 1월 ~ 10월

수입내역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신과 믿음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위: 원)

내역	금액	비율	항목
후원	930,614,065	93.57	개인, 기관, 비정기 및 특별후원금
└ 개인후원	888,105,000	89.30	회원 약 3,588명 후원(2020년 10월 기준)
└ 기관후원	14,510,000	1.46	기관 18곳 후원
└ 비정기후원	14,249,065	1.43	비정기 단기 후원
└ 특별후원	13,750,000	1.38	신년 모금
수익사업	43,261,411	4.35	사업 수입
└ 교육강좌수입	13,516,092	1.36	교육강좌 운영수입
└ 소책자수입	4,243,500	0.43	소책자 4종 수입
└ 인세수입	22,981,820	2.31	발간 책자 인세
└ 소식지광고	2,519,999	0.25	소식지 제작
기타	20,692,215	2.08	도서판매, 일자리 안정 지원금 등
합계	994,567,691	100	

지출내역



(*단위: 원)

내역	금액	비율	항목
사무	194,034,111	20.07	모금, 회원관리, 조직 컨설팅 등
정책사업	361,892,723	37.43	영유아 인권 법 제정, 서열화된 교교 체제 해소 연구, 코로나 발 교육격차 해소 방안 연구 및 대안 제시,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선행교육 규제 법 개정,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등
교육사업	309,152,100	33.60	등대지기 학교, 온라인 강좌 등
시민실천사업	101,804,751	10.53	지역모임, 소책자, 상담넷, 100인 강사 모임 등
합계	966,883,685	100	

12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학교 교육 허수아비 만드는 불수능.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입니다.

배운 만큼만 평가하기

‘배운 만큼만 평가하기’ 당연한 이 말이 우리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선 범위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직 교사도 풀지 못할 만큼 어려운 ‘킬러 문항’은 교실을 황폐하게 하고, 학생과 부모를 혼드는
주범입니다. 이는 사교육비 상승, N수생 양산, 교육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집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범위에 수능 시험이 포함되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작은 온기를 전하며

●글_ 나성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보국장)

매 주 금요일 '주간 노위리'를 보냅니다. 한 주간의 정책, 사업 소식을 요약해 보냅니다. 서두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2020년은 아무래도 처음 겪는 재난 상황 속에서 1년을 보내야 했기에 따뜻한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지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달까요.

1년에 두 번 소식지를 보냅니다. 종이 매체가 사라져 가는 시대에 굳이 비용을 들여 잡지 형태의 소식을 만들다니...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많은 것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따뜻한 만남이 그림습니다. '온'라인도 좋지만 '온'기 있는 매체도 필요하기에 소식지를 보냅니다. 작은 위로를 누군가의 두 손에 놓고 싶었달까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내년에도 계속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열의로 이어져 있는 우리.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주 소통하려 합니다. 부디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한 걸음 더 앞으로 왔다는 소식이길 바랍니다.

4호 소식지를 마감하며 한 해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분께 시 한 편 놓고 갑니다. 2021년도 건강히 뵙겠습니다.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렬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어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 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 박노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중

좋은교사운동

www.goodteacher.org



좋은교사운동이

학습결연 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학습을 어려워했던 아이.
온라인에서 더욱 어려워합니다.

교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습에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선생님이 나서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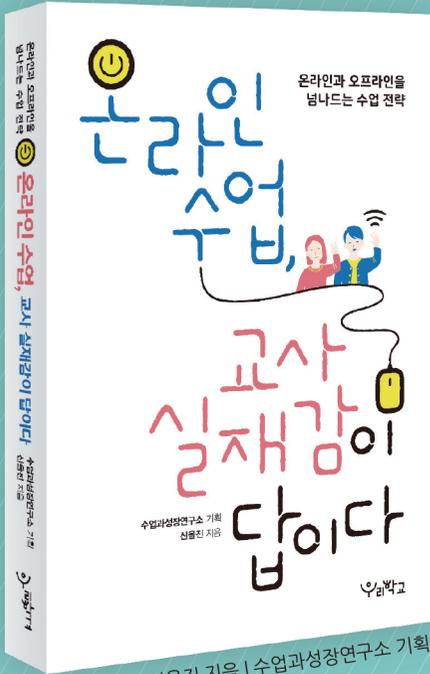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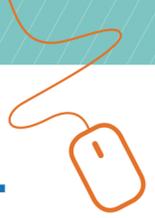
QR코드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도와줄게!

학습결연 119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수업 전략 온라인 수업, 교사 실재감이 답이다



- ★ 교육 분야 12주 연속 베스트셀러
- ★ 교사들이 강력추천하는 이 시대의 교사들을 위한 책!
- ★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출연 '수업과성장연구소' 신을진 대표와 준비하는 '블렌디드 수업'

“온라인 기법만 생각하다가 선생 됨의 본질을 놓치기 쉬운 수업 상황 속에서, 무릎 치며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책이다.”
-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수업?
이제는 블렌디드 수업을 고민해야 할 때

“**교사 실재감**으로 드디어 중심을 잡았어요!”



2
질문하는
어린이

지구를 발칵 뒤집은 작고 위험한 침입자가 나타났다!



바이러스
먼지보다 작은 게
세상을 바꾼다고?

소이언 지음 | 홍성지 그림



**공정: 내가 케이크를
나눈다면?**

소이언 지음 | 김진화 그림



**흥요: 재밌어서 한 말,
뭐가 어때서?**

소이언 지음 | 권승이 그림

- ★ 한국어린이교육문화연구원 으뜸책 선정도서
- ★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어린이인권도서

- ★ 책만사 올해의책 어린이·청소년 부문
- ★ 한우리독서논술 필독서

- ★ 행복하아침독서 추천도서
- ★ 고레가숨쉬는도서관 추천도서